

# 송하진 도지사, 현안 위해 국회방문

### 지역 국회의원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산업부장관 만나 군산조선소 관련 협조 구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관련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했다.

송 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김관영(군산) 의원과 조배숙(익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의원 등을 면담하고 최근 당면한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 정치권(3당)은 함께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과 산업부장관을 직접 만나 군산조선소 상황과 ▲선박수주 물량의 최우선 배정 요구,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산조선소 도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자구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송 지사는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찾아 예산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어 송 지사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남대 의대 정상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서울 국회를 방문하여 김관영 의원과 이춘석 의원, 조배숙 의원, 정운천 의원을 차례로 만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송 지사와 정운천 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차단체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면 면밀히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민형 기자

## 11일 여름철 전력사용 '역대 최고'

### 오후 3시 최대전력 7820만kw... 예비율 9.3%로 떨어져

최근 연이은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지난 11일 여름철 전력 사용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이 7820만kW를 기록하면서 공급능력 8548만kW 대비 예비율이 9.3%로 떨어졌다.

이는 여름철 사용량으로는 역대 최대로, 전체 전력사용량으로는 겨울철인 2016년 1월21일 8297kW, 2014년 12월17일 8015kW에 이어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엔 전력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최근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시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7일 오후 3시 7692만kW로 전력사용 최대 피크를 기록했으나 여름철 전력 수급계획으로 8600만kW를 공급함으로써 예비율은 16.5%에 그쳤다.

한전은 이에 따라 7월15일부터 9월 하순까지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때 이른 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여름철 전력 수요량으로는 역대 최대

치를 기록했다"며 "갑작스런 비상 사태가 올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한전에서는 예비 전력을 조절하고 있는 만큼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전기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가 밀집지역 등의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체를 마무리하는 등 사전준비에 도 나섰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절정에 이르는 8월 2~3주에 전력수급이 비상단계 수준까지 예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직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비력이 500만kW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kW부터 100만kW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순으로 발령된다.

한전은 수급 비상단계 진입시 대응량 고객의 전기사용을 줄이는 긴급절전 시행, 변압기의 전압조정을 통한 추가 예비력 확보 등 단계별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해는 전력수요 급증이 9월까지 예상되므로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피크시에는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자제하는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 도, 내일 건강증진 활성화 간담회

전북도가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13일 도에 따르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아토피 사업 간담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시군 보건소 담당자들이 참여하며 ▲재활·아토피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2015년 사업 운영 성과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사업평가 결과 공유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재활사업의 경우 재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증진 및 재활치료, 장애예방 등 재활건강관리 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자는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발굴·활용해 장애인과 아토피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 '2016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시작

### 20개국 20명 도내서 18일까지 한식캠프·준결승... 결선 7월 20일 KBS 공개홀서

세계인이 참여하는 한식요리대회가 전북에서 펼쳐진다.

13일 전북도는 농식품부, 외교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세계 20개국이 참여하는 한식요리대회 제4회 '2016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를 이날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인 이 대회는 지난 5월 24일 키르기스스탄을 시작으로 해외 20개 공관에서 2개월간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각국을 대표할 본선 진출자 20명이 참여한다.

본선참여 국가는 아주시역 7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과 미주지역 4개국(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구주지역 8개국(러시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헝가리), 아프리카 1개국(알제리)이다.

올해 참가자들은 현지요리사는 물론

회계사, 교사, 웹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식 조리 배운 경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본선 진출자들은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식전도사로 역할을 하도록 13~18일 한식캠프에 참가한다.

이번 한식캠프는 전통한식조리법 교육, 고추장 만들기 체험, 장아장 만들기, 전통 예절 다도체험, 사찰음식 만들기 등 도내 일원에서 전북 한식을 체험한 후 오는 18일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펼쳐지는 준결승전에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승 진출자 5명이 가려진다.

결선은 7월 20일 KBS 여의도 공개홀에서 개최되며 우승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

20개국 참가자 전원은 외교부 한식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된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물품육장은 "전북은 한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한식요리대회를 주도해 왔다"면서 "이번 행사는 한식조리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한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서식 주민번호 삭제 87%

앞으로 허가증과 출입증 등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신청서, 청구서 등 서식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2127건 중 1855건(87.2%)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용주 기자

## 전북 '3D프린팅발전협의회' 발족

### 회장에 나의균 군산대 총장

전북도와 학계,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한 3D프린팅발전협의회가 1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운영 회칙을 의결하고 초대 협의회 회장에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을, 부회장에 전북대학교 양성모 교수, (주)엔아이비 강창진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또 문화콘텐츠, 자동차·기계·뿌리, 소재·바이오, 교육·보급 분야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3D프린팅 산업은 미래의 혁신기술

을 선도하며 3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의료용 인공보형물은 물론, 금속 3D프린트 등 소재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소비재, 전자, 자동차, 메디컬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최근엔 권총 제작,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나의균 협회장은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전주 3D프린팅 특화지원센터 유치 등 전북에 3D프린팅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이 조금씩 채워지는 만큼 관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